

소그룹 교재(2022년 4월호/4주분량)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185 장(통 179 장) 이 기쁜 소식을
새 28 장(통 28 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찌라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마가복음 1:1-8

3. 여는 질문

최근 들은 소식 중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자신에게, 가정이나 교회에, 혹은 자녀들과 관련된 소식도 좋고, 우려하던 세상의 일들에 대한 소식도 좋습니다. 응답 받은 기도제목 소식도 좋고, 누군가 병에서 회복이 되었거나, 기대보다 잘 견디고 있다는 소식도 좋습니다. 인도자가 먼저 너무 길지 않게 1-2 분 정도의 길이로 나눔을 시작해 주시면 좋습니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본문 2, 3 절에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3 장 1 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주께서 보내신 ‘그 사자’이며 곧 말라기가 약속한 ‘엘리아(말 4:5)’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7 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능력 많으신 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 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 앞에서 그 찬찬 일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good news) 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에 회자되어 사용되던 ‘복음(1 절)’이란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혹은 로마 황제가 등극하거나 왕위를 계승할 후손이 태어난 것을 두고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특히 옥타비아누스 황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전쟁이 그치고 마침내 평화가 왔다고 하며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와의 싸움, 고통과 두려움과의 싸움 그리고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누구도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그 문제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어깨를 펴고 고개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기쁜 소식’입니다.

5. 말씀과의 만남: (관찰질문-해석질문 2-3 개, 질문당 1-2 줄)

- 1)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3-5 절)
(곧은 마음과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전하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마음 받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계의 세례' 를 선포하였습니다.)
- 2) 말라기 이후 거의 4 세기 동안 선지자를 만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5 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침묵의 400 년'이 있었습니다. 오래토록 간절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감격과 동시에, '이것이 무슨 영문인가?' 하는 의아해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세례 요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지금도 우리는 매일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 2) 내 삶은 언제,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품은 삶이 시작되었나요?(1 절)

암송구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1

7.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예수님을 통해' 기쁜 일이 생길 때는 어느 때이고, 그냥 '예수님' 이 좋을 때는 언제인지 얘기해 봅시다.

8. 기도제목 나눔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370 장(통 455 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545 장(통 344 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복음성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마가복음 4:26-32

3. 여는 질문

식물이나 동물을 키워 본 경험 중 인상 깊었던 순간을 하나씩 나눠 봅시다.

(식물이나 동물들을 키울 때에, 작은 것이 점차 자라가는 과정에서 느낀 신비와 놀라움을 나누면서 멤버들 사이에 친밀한 나눔의 기회를 삼고, 동시에 점진적으로 자라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겨자씨는 당시의 농부들이 사용했던 파종 씨앗 중에 가장 작았습니다. 당시 이 땅의 거대한 제국들에 견주어 하나님 나라를 연상케 하기에는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튼실한 나무라면 백향목 정도의 고급스럽고 튼실한 이미지를 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라나는 것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저희 집 뒤뜰에 작은 정원이 있는데 언젠가 성도님이 가져다 주신 깻잎 모종을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겨우 주먹 만한 작은 모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식물을 제대로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며칠간 물을 몇 번 준 것을 제외하고는 해 준 것이 없었는데 몇 주 후에 보니, 그 작았던 모종이 어느새 제 무릎만큼 자라 있었고, 손바닥만한 깻잎들도 꽤 많이 열려서 ‘수확’이란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자 거기에서 씨가 날려서 여기 저기에 도 깻잎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모종을 심어 놓고서 한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 자는 동안에 또 집을 비운 동안에도 땅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깻잎을 튼실하게 키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27 절의 말씀과 같았습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 밭에 떨어뜨려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씨앗을 심는 일과 같습니다. 순종으로 심은 그 씨앗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 우리 인생의 텃밭에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5. 말씀과의 만남:

- 1)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26 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져 심겨졌다는 뜻입니다.)
- 2)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1 절)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작은 것을 의미하듯, 평소에도 많이 듣던 말씀, 엄청난 깨달음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대단한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땅에 떨어져 그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말씀의 씨앗이 자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비유가 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26,27 절)
- 2) 최근 내 마음 밭에 떨어진 말씀에 대하여 겨자씨 같은 작은 순종으로 심었던 때는 언제였나요.(31 절)

암송구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마가복음 4:26

7.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1) 하나님 나라를 위해 농부처럼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8. 기도제목 나눔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597 장(통 378 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새 425 장(통 217 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복음성가/ 하나님의 음성을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마가복음 12:18-27
3. 여는 질문
나중에 알고 보니 큰 오해를 하여 실수를 했던 경험들을 나눠 봅시다.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듣고, 선불리 판단했던 일이나, 선입관 때문에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경험을 나눠 봅니다. 'Everyone's make sense is not common' (모든 사람의 상식은 공통적이지 않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체로 귀족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공의회였던 산헤드린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고, 모세오경(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만을 신적인 권위를 지닌 문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이 부활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 관념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논리의 예시로 삼고 있는 '일곱형제 중의 진짜 아내' 이야기 역시 신명기 25 장에 나오는 '수혼법'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수혼법'은 사망한 형제의 과부와 그 죽은 자의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모두 이 땅에서의 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24 절).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좋아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보란듯이 모세오경의 중심인물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란 것을 강조하십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미 죽고 없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연신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고 없는 그 족장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산 사람들이 될 살아있는 족장들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느냐?(28 절)”

5. 말씀과의 만남:

- 1)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잘못된 질문과 주장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하셨나요? (24 절)

(첫째,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을 본래의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하나님을 마치 사람의 시간과 공간과 능력 안에 계신 분처럼 생각하니 인간적인 질문이 끊이질 않는다)

- 2) 사두개인이 하고 있었던 ‘큰 오해’는 무엇이였을까요? (25-27 절)

(사두개인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도,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갈 것이라는 생각, 즉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의 연장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 1) 이 땅에서의 작동 원리를 가지고 하늘에 속한 일들에 적용하여 오해를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마치 사람의 일처럼 생각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을 하고 오해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예를 들어, 마리아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등등)
- 2) 내가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태도로 선불리 단정지었다가 오해를 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

암송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마가복음 12:24

7.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고 선불리 판단하여 가족이나 친구를 오해했던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8. 기도제목 나눔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제목: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입니다

1. 찬양과 여는 기도

새 160 장(통 150 장) 무덤어 머물러

새 164 장(통 154 장) 예수 부활했으니,

복음성가/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2. 말씀본문 함께 읽기: 마가복음 16:1-8

3. 여는 질문

사는 동안 '죽을 뻔 했던'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 하나씩 나눠 봅시다.

4. 본문이해 (가능하면 소그룹 멤버들이 한 문단씩 돌아가며 읽으면 좋습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곧 성모 마리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샀습니다(1 절). 안식일이 지나야 향품을 파는 가게들이 문을 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에는 안식일 법에 의해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길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후 첫날인 주일 새벽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2 절). 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 여인들은 담대하게 어둠을 헤치고 무덤으로 향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또한 천사는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겠다는 소식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7 절). 갈릴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제자 삼은 곳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곳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를 하고 고향 갈릴리로 내려간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실패의 한 복판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a new beginning)을 계획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죽음에서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절망과 자책으로 죽었던 제자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천하고 부끄러운 갈릴리에도 먼저 오셔서 기다리실 것입니다.

5. 말씀과의 만남:

1)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와 때는 언제였나요? (1-2 절)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주일 새벽)에 갔다)

2)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7 절)

(이유를 상상해 보면서 자유롭게 나눠 보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제자들을 처음 만나 부르신 장소였습니다.)

6. 삶 속으로 (적용질문 2 개, 각각 1-2 줄로)

1) '이제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만큼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나눠 봅시다.

- 2) 되돌아가기 싫은 누추하고 부끄러운 곳이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었던 내 인생의 '갈릴리' 는 언제 혹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암송구절: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마가복음 16:7

7. 자녀와의 나눔 (40-80 자, 1-2 개)

- 1) “예전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후회가 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다면 얘기해 보자.

8. 기도제목 나눔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주기도